근현대 비구니 선지식들 삶·사상 조명한다

대행선연구원 6월 17일 제7회 학술대회 개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들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6월 17일 오전 9시 30분 동국대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제7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근·현대 비구니의 삶과 사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엽 스님, 봉려관 스님을 비롯해 은영 스님, 인홍 스님, 대행 선사 등 근·현대 시기 한국 비구니계를 이끌었던 선지식들의 업적과 사상을 연구·조명한 논문들이 발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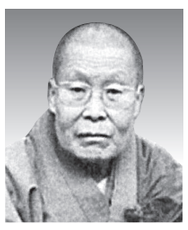
(사)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은 '봉려관과 제주불교 지평의 확장'에서 근대 제주불교의 부흥을 이끌었던 봉려관 스님의 사상을 조명한다. 혜달 스님은 "근대 제주불교 최초 비구니인 봉려관은 한라산에 관음사를 최초 창건했고, 제주와 일본 오사카에 10여개 사찰을 중·창건했다. 200여 년간 지속된 제주불교 암흑기를 끝내고 마침내 제주불교를 일으켜 세웠다"고 강조하며 힘겨운 시대상황 속에서 봉려관이 보인 대담하고 진취적인 행보를 주목해야 함을 역설한다.

'담연당 선경의 선사상-삶과 수행을 중심으로'를 발표하는 여현 스님(동국대 박사)은 유활문도회의 수장으로 수행에 매진한 담연당 선경 스님의 선사상을 살필 예정이다.

여현 스님은 "선경 스님은 질곡이 많은 어려운 시대를 살다 가신 비구니로서 철저하게 수행자의 길을 걸었고 참선 수행을 배운 이래로 한 순간도 화두를 놓지 않았다"면서 수행자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선경 스님의 사상을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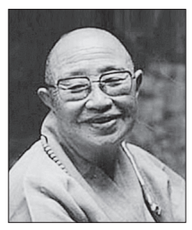
김일엽문화재단 부이사장 경완 스님은 '김일엽 스님의 선사상 고찰'을 통해 근대 선각자인 일엽 스님의 수행자적 면모를 저작들을 통해 되짚는다. 경완 스님은 일엽 스님의 마지막 작품집인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를 바탕으로 만년에 일엽 스님의 사상을 살피고 그 중심에 생명과 공(空) 사상이 있음을 밝힐 예정이다.


봉려관 스님


선경 스님


일엽 스님


은영 스님


인홍 스님


대행 선사
〈학술대회 발표 논문 순〉

일엽·봉려관·대행 스님 등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 조명
묘공학술상·장학증서 수여도

전영숙 연세대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비구니 은영 스님의 생애와 보문종 창종의 의의'를 통해 세계불교사에서 유례 없는 비구니 종단인 대한불교보문종(이하 보문종)을 창건한 은영 스님의 삶과 사상을 살핀다. "은영 스님의 생애는 걸출한 한 비구니의 개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현대 한국 여성불교 역사의 장편 대하드라마였다"라고 술회한 전 전문연구원은 은영 스님이 겪었던 중요 사건들을 한국 여성불교사의 거시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예정이다.

'가지산 석남사 인홍 스님의 삶과 사상'을 발표하는 동국대 강사 일중 스님은 현대 비구니 선지식 인홍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조명한다. 일중 스님에 따르면 인홍 스님의 선사상은 선밀쌍수(禪密雙修), 복혜쌍수(福慧雙修) 사상과 계율·위의 중시 사상으로 정리된다. 인홍 스님의 이런 사상들은 가지산 석남사의 독특한 수행 가풍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 일중 스님의 설명이다.

윤종갑 동아대 초빙교수는 '대행선(大行禪)의 마음공부와 주인공 명상'을 통해 대행선 특징과 요체를 살핀다. 윤종갑 초빙교수는 위빠사나(vipassana)를 바탕으로 한 대행선은 붓다의 정통적 수행을 계승했음을 밝히며 대행 선사만의 독창적인 개념인 '한마음 주인공'은 매우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개념임을 강조한다.

또한 이날 학술대회의 논평자로는 김광식 前 동국대 특임교수,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장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하춘생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사찰경영과정 책임교수, 조계종 前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 이상호 서강대 박사가 참여한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질곡의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국 비구니 승단이 유지·발전할 수 있던 것은 눈 밝은 선각자들이 있어 가능했다"면서 "지난해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황을 살폈다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들의 면면들을 연구·조명하려 한다. 많은 대중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제5회 묘공학술상시상식과 제5회 묘공학술장학증서 수여식도 진행된다.

올해 묘공학술상은 대상 없이 우수상 2명이 수상했다. 수상자로는 김경집 한국전통문화대 외래교수(묘공 대행선사의 한마음선원 설립과 그 시대적 의의)와 조승미 경북대 동서사상연구소 전문연구위원(중국 명말청초 비구니선사 황금기의 조명)이 선정됐다.

묘공학술장학에는 석사 부문에 나의진(동국대 WISE캠퍼스)·안홍민(하버드대), 박사 부문에 이혜빈(오슬로대), 박사수료 부문에 석보원(동국대 WISE캠퍼스) 씨가 선정됐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HanmaumTemple)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종교지도자 오찬에 참석한 각 종교 대표들이 담소를 나누며 걷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진우 스님 "국민 마음 평화 위해 정부와 노력"

종교지도자들,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불교 등 각 종교 대표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9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초청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울 때마다 종교계가 보여준 연대정신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인사했다.

종교지도자를 대표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민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대통령과 정치권이 노력해달라"면서 "종교계와 정부가 국민들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신성민 기자

"마음 평안할 때 행복 세상 열린다"

조계종 대표단, 태국서 열린 UN베삭데이 참석

세계 65개국 1200여 명 동참
소운 스님 동물해방 발제 호응

부처님의 탄생·깨달음·열반을 기념하는 '유엔(UN) 베삭 축제'가 베트남에서 열린 가운데 조계종 대표단이 공식 초청을 받고 참석했다.〈사진〉

조계종 해외특별교구장 권한대행 정범 스님을 단장으로 한 조계종 대표단은 지난 6월 1~2일 이틀간 태국 야유타야 마하쭐라롱콘라자비타얄라야 대학교 및 방콕 유엔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제18차 유엔 베삭 축제'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에는 조계종 대표단을 비롯해 태국 승왕(Somdet Phra Ariyavangsagatayana), 중국불교협회 연각 스님, 베트남 불교중앙협회 종정(Most Ven. Thich Tri Quang) 등 65개국 1200여 명의 불교 지도자, 종교학자 등이 동참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올해 베삭데이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이번 제18차 베삭데이 기념행사에 조계종은 해외특별교구 교구장 권한대행 정범 스님을 대표로 조계종 사회국장 현우 스님, 포교국장이자 제9기 국제교류위원 문종 스님, 제9기 국제교류위원 경완 스님, 이미란 국제팀장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또 종립 동국대에서도 황순일 교수를 대표로 교수진 및 관계자 10여 명이 참가했다.

6월 2일 열린 공식 개막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대표단장 정범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내 안에 존엄함을 깨닫고 청정하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세상을 열 것"을 강조했다. 먼저 팬데믹 종결을 위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함께 노력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모든 혐오, 폭력, 질병 등 생명을 괴롭히는 것들이 사라지길 발원했다.

이번 베삭데이 기념행사에서 진행된 3차에 걸친 패널 토론에서는 △세계평화달성을 위한 불교적 지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불교적 조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 및 인도주의 발전에 대한 불교적 기여를 주제로 세계불교 석학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두 번째 패널토론에서는 부산 동명대학교 교수 소운 스님이 '깨달음을 통한 동물해방, 생태위기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패널토론을 통해 결의된 이번 제18차 유엔 베삭데이 방콕선언문에서는 세계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불교의 상호 의존에 대한 인식을 촉진할 것을 촉구했으며, 특히 세계 불교도들이 용서, 비폭력, 연민, 관용이라는 불교 가르침을 적용함으로써 전 세계의 평화와 화해를 증진할 것을 표명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세계법왕 일붕존자님 탄신 109주년 기념 및 원적 27주기 추모 대법회

일시 : 불기 2567(2023)년 6월 26일(음력 5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법요식)

◈ 행 사 : 세계법왕 일붕존자님 탄신 109주년 및 원적 27주기 추모대법회
◈ 일 시 : 불기 2567(2023)년 6월 26일 (음력 5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의령 일붕사(경남 의령군 궁유면 천정로 1202-15)
◈ 전 화 : (055) 572-7777(일붕사)
(02)777-0901(일붕문도회), (02)777-0959(일붕신문사)

● 주최 : 세계법왕 일붕문도중앙회 ● 주관 : 세계법왕 일붕문도중앙회·의령 일붕사

초대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일붕문도는 물론 불자 여러분들의 사내와 가내에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일붕 존자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충만하옵기를 합장 기원 드립니다.
금번 우리의 대 스승님이신 세계불교 법왕청 초대 법왕을 역임하신
일붕 서경보 존자님의 탄신 109주년 기념식 및 원적 27주기 추모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국내외 계신 일붕문도(은상좌, 법상좌, 조카 상좌, 유발 상좌)는 물론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불자 여러분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충만하옵기를 합장 기원 드립니다.

불기 2567(2023)년 6월

수 석 고 문 임담 의현 방장
상 임 고 문 정각 대종사·법륜 대종사
총 재 동봉
문 장 혜운
명 예 회 장 천강
회 장 정림
수석부회장 무각·도심·광명심
사 무 총 장 서병열
사 무 국 장 배영희 합장

